

# 전남도, 美 'LA 트래블쇼'서 여수세계섬박람회 알렸다

북미 최대 소비자 여행박람회 참가...관광·농수산물 홍보  
김·약과·배젤리 시식 행사도 개최...현지 관람객 등 큰 관심

전남도가 미국 최대 소비자 여행박람회인 'LA 트래블쇼'에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전남 관광자원을 집중 홍보하며 북미 관광시장 공략에 나섰다.

전남도 미주사무소는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LA 트래블쇼' 한국 공동관에 참가해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전남 관광, 농수산물 등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LA 트래블쇼는 미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열리는 북미 최대 규모의 소비자 여

행박람회로, 유료 입장 방식으로 운영돼 실제 여행 수요가 있는 방문객이 주로 찾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행사는 지난 8일 까지 이틀간 열렸다.

전남도는 박람회 현장에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마스코트 '다성이' 키링과 볼펜 등 기념품을 배부해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다. 또 전남 22개 시군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홍보자료를 배부하고 방문객 성향에 맞춘 맞춤형 여행 상담을 진행했다.

전남 농수산물 홍보도 함께 이뤄졌다.

전남산 곱창김으로 만든 'K-전남 김'을 전시하고 조미김, 약과, 배 젤리 등을 활용한 시식 행사를 운영해 현지 관람객들이 직접 맛을 체험하도록 했다.

현장에서는 한국 전통 간식과 전남 특산품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며 홍보 효과를 높였다는 평가다.

전남도 국제협력관 관계자는 "LA 트래블쇼는 북미 소비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관광 홍보 무대"라며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전남 관광자원을 적극 알리고 전남 농수산식품의 해외 판로 확대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도 미주사무소는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LA 트래블쇼' 한국 공동관에 참가해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전남 관광, 농수산물 등을 홍보했다.

# 광주교통공사·광주디자인진흥원, 공공디자인 협력

지하철 역사 안내 표지 혁신  
'행동 유도형' 디자인 도입

광주도시철도 역사에 이용객의 안전한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 유도형' 디자인 개념이 도입된다.

광주교통공사와 (재)광주디자인진흥원이 광주시의 공공디자인 경쟁력 강화하고 시민 중심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에 나섰다.

광주교통공사(사장 문석환)와 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김용모)은 11일 '광주시 공공디자인 경쟁력 강화 및 혁신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 역량을 결합해 도시철도 역사 등 공공 공간에 디자인 가치를 더하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통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도시철도 역사 내 공공디자인 적용 및 공간 조성, 디자인 분야 국제사업 공동 발굴 및 대응, 역사



광주교통공사(사장 문석환)와 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김용모)은 11일 '광주시 공공디자인 경쟁력 강화 및 혁신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내 문화·전시 및 디자인 프로그램 등 시민 참여 행사 활성화,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ESG 실천 및 도시 브랜드 강화, 임직원 디자인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 등 총 5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단순 안내 표지를 넘어 이용객의 자연스럽고 안전한 행동 변화를 유

도하는 '행동 유도형(Nudge)' 디자인 개념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시철도 역사의 보다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디자인을 체험할 수 있는 지역 문화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문석환 광주교통공사 사장은 "광주디

자인진흥원의 전문적인 디자인 역량이 도시철도 시스템과 결합되면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자인 혁신을 통해 광주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 중심 교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국립나주박물관은 나주 마한문화의 고도 지정·연구 활성화를 위해 최근 나주 시청에서 나주시,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호남고고학회, 반남마한유적보존회 등 민·관·학 5개 기관이 모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나주박물관, '마한 고도 지정' 민·관·학 협력

5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립나주박물관은 나주 마한문화의 고도 지정·연구 활성화를 위해 최근 나주 시청에서 나주시,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호남고고학회, 반남마한유적보존회 등 민·관·학 5개 기관이 모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나주 마한권역은 다른 삼국문화권과 차별화된 독자적인 문화 중심지로, 반남고분군과 금동관, 자미산성 제사터, 오랑동 가마터 등 그 흔적을 밝혀줄 유적들이 무수히 남아 있어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특정 시기의 수도 또는 임시 수도이거나 특정시기의 정치·문화의 중심지)에 따른 고도 지정 요건을 갖춘 공간이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관내 민·관·학 연구기관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고도 지정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 적극적인 협력이 나설 예정이다.

주요 협약내용은 마한 고도 지정 및 마한사 규명 등 마한문화에 밝히기 위한 협력사항이며 협약사항 이행을 위해 체결기관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이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전망이다.

향후 나주시 고도 지정을 위한 추진 일정은 3월 마한 고도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을 시작으로 7월 중에는 협약기관이 참여한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여 마한 고도 지정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오는 11월에 국가유산청에 고도 지정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상태 국립나주박물관장은 "마한문화의 규명 및 국민적 공유를 위해 설치된 국립나주박물관으로서, 이번 고도 지정 추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향후 지역문화와 박물관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희 기자 pose007@gwangnam.co.kr

# 영광군청소년오케스트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 획득

프로그램 공신력 확보  
청소년 성장 최적 환경 입증

영광군이 운영하는 '영광군청소년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이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을 획득하며 공신력 있는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이번 인증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으며, 인증번호 제3465B05F-13454호로 등록됐다.

인증 유효기간은 2030년 2월 24일까지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심사 기준에 따라 프로그램의 안전성, 지도력, 활동 내용의 적절성 및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영광군청소년오케스트라는 만9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 60명을 대상으로 운영

되는 기본형(회기) 프로그램으로, 총 10일 20시간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활동 장소는 영광군청소년문화센터와 비롯해 영광예술의전당, 영광청년육아나눔터 등 지역 문화공간에서 진행된다.

이번 인증을 통해 영광군청소년오케스트라는 체계적인 음악교육, 청소년 협동심·사회성 함양, 문화예술 역량 강화,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등 교육적 효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영광군청소년문화센터 관계자는 "이번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은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대외적으로 검증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이 음악을 통해 성장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는 국가가



영광군이 운영하는 '영광군청소년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이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을 획득하며 공신력 있는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청소년 활동의 내용과 운영 체계를 심사해 일정 기준에 적합한 프로그램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학부모와 참여 청소년에게 신뢰도 높은 활동 정보를 제공하고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98@gwangnam.co.kr

# 영암군, 제1회 조훈현배 전국학생바둑대회 성료

학생·학부모 800명 대국·응원 열기...4개 부문 우승자 배출



영암군은 최근 영암군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조훈현배 전국 어린이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영암군은 최근 영암군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조훈현배 전국 어린이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조훈현 국수의 업적과 도전 정신을 기리고, 학생들이 바둑으로 논리적 사고력과 집중력, 스포츠맨십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 800여명의 참가자와 학부모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특히 대한민국 바둑의 전설 조

훈현 국수의 고향 영암에서 열린 첫 전국 행사로 의미를 더했다.

전국 초·중·고등학생들은 바둑판 앞에서 그동안 다져온 실력을 겨뤘. 고등청소년부에서는 한국바둑고 1학년 송민경 학생이 정상에 올랐고, 중등부는 서울성서중 2학년 심호준 학생, 초등 고학년부는 서울연은초 6학년 허태웅 학생, 초등 저학년부는 다산새봄초 3학년 김정현 학생

이 각각 우승했다.

참가 학생들은 각 부문별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올랐고, 대회장 곳곳에서는 미래 바둑 인재들이 학부모들의 응원 속에서 우정을 쌓으며 정장의 대국을 벌였다.

영암군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바둑을 지역 대표 문화자산으로 육성하고, 체류형 스포츠 관광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만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조훈현 국수의 고향에서 열린 첫 학생 바둑대회가 전국의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뜻깊다. 영암을 대한민국 바둑 인재의 산실로 다져가겠다"고 말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

# 담양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어르신 네일아트 봉사

학교 밖 청소년 참여...세대 간 교류 활동 운영



담양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손은아)는 최근 담양군향촌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네일아트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의 하나로, 청소년들은 사전에 위생관리와 서비스 예절에 대한 교육을 받은 뒤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봉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 5명은 손톱 정리와 색칠 등의 활동을 진행하며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다. 센터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관과 연계한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습을 중단했거나 미취학 상태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지원, 직업체력, 기술자격 취득, 건강검진 등 학업 복귀와 사회 진입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담양=이시수 기자 lss270@gwangnam.co.kr